



양돈협회, 각 지역 해양경찰서에 돼지고기 전달

- 경기도협의회, 인천 해양경찰서에 400kg 전달

(사)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국내로의 외래 악성질병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감축에 따른 업무 협조를 위해 각 도협의회별로 지역 해양경찰서에 돼지고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에 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도협의회장 김건호)는 지난 11월 21일 인천 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를 방문, 국산 돼지고기 전·후지 400kg을 전달하고 향후 해양경찰서와의 업무 협조를 다짐하는 한편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건호 경기도협의회장은 “앞으로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데 크게 공감하고 양돈농가들도 이를 인식, 분뇨 자원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해양경찰서에서도 양돈농가의 입장을 헤아려 관련 업무를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상철 서장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 우수사례를 집대성해 정책보고에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해양배출량 감축 대책에 부족한 점은 협의점을 찾아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양돈협회의 돼지고기 전달행사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 양돈협회 충청도협의회(도협의회장 장장길)와 충청도협의회(도협의회장 전홍우), 전북도협의회(도협의회장 송정기)는 합동으로 지난 9월 30일 군산 해양경찰서에 6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전달했다. 한편 제주도협의회(도협의회장 김성찬)와 경남도협의회(도협의회장 하태식), 경북도협의회(도협의회장 김성곤), 강원도협의회(도협의회장 정종만), 전남도협의회(도협의회장 최희태)도 도협의회별로 성금을 모금, 해당 해양경찰서에 돼지고기를 전달할 계획이다. **양돈**